

금성리 알당, 서낭당은
새서물 짐훈장 시절에
육지에 배를 부쳐
옹기장시, 양태장수를 흐여,
몰배, 쇠배를 지여서
육지를 가,
경상도 태백산을 거쳐
황해도 월출산,
절라도 지리산을
불라 올 때에
애기씨를 만났습니다.
애기씨가 말을 흐되,
“나를 잘 사귀고 맥여주민
장수를 잘 시겨준다.”
오곡밥, 대정판 갈빗점.
수시 괴기를 맥여준다면
장수를 잘 시겨준다.” 흐여.
“그거는 어렵지 아녀다.” 흐여,
애기씨 요구대로
문 사 맥이니,
이력이 잘 되여.
제주로 돌아올 때는
그 애기씨가,
“나를 혼 고양으로
모시고 가라.” 흐니.
짐훈장 생각으론
똑 혼 것으로 생각을 흐멍도,

허급을 헛여두고,
올 때엔
술째기, 몰르게
배레레 올란 보난.
그 애기씬 모녀 알안.
배에 조재기 앗아시니.
어떻홀 수가 엊었는디.
이젠, 애기씨가
짐훈장?라.
“이녁 몰르게 왔다.”고
훈두왁을 헛고,
“너놈 나 때문에
잘 되였는디.
나를 안식경 가젠 헛염젠.”
호령을 헛니,
짐훈장은
“잘 못했네.”
빌어간다 빌어온다, 헛니.
“게건, 너네 상핏방으로
모시라” 헛여,
글로부터 애기씨를
짐훈장네 상핏방으로 모시니.
집안이 부제로 잘 되였수다.
지금은 이 조상을
칠성으로 잘 위호다가
집을 틀어부니
도실낭이 낳고 왕대도 낳니
“왕대울성 도실낭”알로
애기씨 서낭당을 우망호니.

일보제기 일증수가
애기씨 서낭을 잘 위호여
돛는 괴기 심어주곡.
느는 괴진 백발술에
은낙설 늘갤 돌아주고,
증순 빗창끝에
악근 듬북 한 듬북 미 듬북
살구쟁기를
망시리에 그득그득 담아주고.
매역도
감은암쇠 욱어지게
지어오라지곡 혼니.
이 조상을 아니우망하는
증수나 보제기가 웃곡.
만약에 이 애기씨 서낭을
아니위하는 증수나 보제긴
이력이 아니되니.
이제까지 모두들 우망흡네다.

제일, 주손에 생기 맞은 날 택일함.

<애월면 곽자리 남무 48세 이상문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591-592.